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 “기부는 선택 아닌 필수... 나눔 널리 퍼지길”

(주)천제 홍성호 대표

지역 곳곳에 도움 손길 전해  
고액기부 그린노블클럽 가입  
아내와 자녀 해외아동 후원도



(주)천제 홍성호(사진 가운데) 대표와 아내 김향숙(사진 왼쪽)씨가 플래카드를 들고 어린이 기부 홍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스트리트형 상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천제 홍성호 대표(46)가 통 큰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의 아홉 번째 주인공으로 홍성호 대표를 소개한다.

홍 대표는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2010년에 회사를 창업해 경영자의 길로 들어섰다.

주변에 만류에도 홍 대표는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다. 홍 대표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집안 친척들의 반대도 심했다”면서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모아 마련한 자금으로

조경사업을 시작한 후, 부동산개발업, 종합건설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갔다. 홍 대표의 행보에 발 맞춰 홍 대표 부인도 사업 동반자로 참여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아내는 남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야간 대학을 다니며 건축학을 공부했다.

회사를 꾸려가며 바쁜 일정에도 홍 대표 부부는 주변 이웃을 돕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지역아동센터와 미혼모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회사 행사 때마다 들어온 쌀은 항상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보태졌다.

홍 대표의 나눔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갔다.

홍 대표는 지난해 국제로타리 AKS 회원으로 가입해 3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 올해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고액후원자 네트워크인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부인과

자녀도 홍 대표를 본받아 해외아동 돕기에 나섰다.

홍 대표는 “기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특히 그는 “어린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했다.

홍 대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사람은 모두 운(運)을 갖고 있고 노력하면 운이라는 기회가 올 것”이라며 “그러니 모든 아이들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현재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사회를 위한 또 다른 나눔 행보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소외된 어린이를 포함해 지역사회 여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로 나눔을 넓히고 싶다”고 전했다. 후원문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화재현장 뛰어들어 생명 구한 청년들

부혁준·한승효씨 감사장 수여  
“아찔한 상황 속 용기 보여줘”



부혁준 한승효

주택 화재 현장 근처를 지났던 두 청년이 부상을 무릅쓰고 인명피해를 막아내 귀감이 되고 있다.

25일 제주소방서·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42분쯤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이 났던 주택 근처를 지나던 부혁준(27)·한승효(27)씨는 주택 2층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119에 즉시 신고한 후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잠긴 현관문의 유리창을 두드려 잠들어 있던 거주자를 깨운 뒤 1층으로 대피시켰다.

구조 과정에서 한승효씨는 깨진 현관문 유리창에 손목이 3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들의 적

극적인 대처로 화재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며 “이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밀집 주택들로 연소가 확대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25일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오층의 동부경찰서장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화재 현장에서 용기있는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을 구했다”며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학교 급식에 쌀소라 이어 갈치까지...

서귀포수협 수산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귀포수협 수산물 지원받아 '수산물 식습관 길들이기'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수협에서 도내 36개교(초 17교·중 11교·고 6교·특수 2교)에 갈치순살 508kg, 제주수갈치어묵 869kg 등 총 21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무료로 지원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해당 학교 급식시간에 갈치와 은갈치어묵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선물을 한 서귀포수협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제주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7일에도 서귀포수협과 함께 코로나19로 수출판로가 막힌 쌀소라 소비촉진을 위해 공동구매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학교급식에 쌀소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도 함께 개발했다.

송은범기자

##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적발시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금연구역으로 구성된 2개 단속반은 지난 23일부터 합동 단속요원과 함께 서귀포지역 내 PC방·음식점·실내체육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1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을 통해 PC방에서 흡연을 하던 30대 남성을 적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연구역에 재떨이가 비치돼 있거나 흡연구역의 위치가 잘못된 스크린골프장·당구장 등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영준기자 yihyeon@ihalla.com

## 유해로 만난 '혈육의 소리' 열아홉번째 4·3본풀이마당

'이산과 재회' 주제... 3명 증언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소장 허영선)는 27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4·3, 이산과 재회'를 주제로 열아홉 번째 증언본풀이마당을 연다.

이번 본풀이마당은 4·3 72주년과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으로, 예비검속 광풍 속에 희생된 이들의 유족 3명이 나서 사연을 풀어 놓는다.

먼저 이순희(1933년생)씨는 예비검속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다행히 학살터에서 시신을 수습해 현재 백조일손지지 묘역에 묻혀있다.

이어 고영자(1942년생)씨는 어릴 적 알뜰히 살피주던 아버지를 예비검속으로 잃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유전자 감식을 통해 2019년 정뜨르비행장에 묻혀 있던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다.



몰질하는 해녀들 포근한 날씨를 보인 25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몰질을 하고 있다.

정세민(1944년생)씨는 4·3으로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다. 수 십년 가족을 가슴에 묻고 홀로 살아오던 그는 2019년 예비검속희생자인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에는 증언과

함께 가수 최상돈의 노래 공연도 함께한다.

4·3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증언본풀이마당을 열어왔다. 이 과정은 4·3체험자들이 마음속에 쌓여온 기억을 풀어냄으로써 자기를 치유하는 트라우마 치유마당”이

라며 “또 4·3의 진실을 후세대에 알리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풀이마당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인원을 제한해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4·3연구소(756-4325)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새로운 희망 일자리 여행

## 제주관광인 경력이음 플러스 사업



**제주관광인 경력이음센터**

제주상공회의소 Jeju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제주지역인력개발위원회

## 제주관광인 경력이음 플러스 직무체험 교육생 모집

- 내용 관광크리에이터 직무체험 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기법을 활용해 보다 풍부한 관광 콘텐츠 제공 가능
- 주관 제주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교육개요
  - 교육대상: 30세 이상 이직·전직 희망자 및 퇴직자
  - 교육장소: 제주관광인 경력이음센터 교육장 (서귀포고등학교 옆) 서귀포시 중앙로 146 스키아빌딩 4F
  - 참여인원: 정원 15명 \*선착순 모집
  - 모집기간: 교육내용 및 일정 참조
  - 신청방법: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s://jejucci.korcham.net)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E-mail azunaakoma@nate.com  
Tel 070-8990-4838 (평일 09:00~18:00) \*전화 사진 예약 가능

• 교육혜택: 교육비 무료, 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 인정, 중식 제공

• 교육내용 및 일정

	제 1 회	제 2 회
프로그램명	관광크리에이터 직무체험과정	관광크리에이터 직무체험과정
일시	11월 26일(목) ~ 27일(금) 10:00~17:00 (1시간 점심)	12월 08일(화) ~ 09일(수) 10:00~17:00 (1시간 점심)
모집기간	11월 18일(수)~11월 25일(수)	
구성 및 내용	11/26	12/08
	11/27	12/09

생애경력설계

- 직업 흥미탐색 및 강점지능 파악하기
- 경력설계 자기진단과 목표설정

생애경력설계

- 직업 흥미탐색 및 강점지능 파악하기
- 경력설계 자기진단과 목표설정

크리에이터 직무체험

-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운영 전략
- 랭킹팩터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 유튜브 광고 사례 및 전략

크리에이터 직무체험

-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운영 전략
- 랭킹팩터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 유튜브 광고 사례 및 전략